

자율 산업보건사업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송재석, 원종욱, 손명세, 차봉석*, 노재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Abstract =

Study of requirements and conditions to be improved for voluntary occupational health program in worksite

Jae Seok Song, Jong Uk Won, Myong Sei Son, Bong Suk Cha*, Jaehoon Ro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o perform voluntary occupational health program in worksites, regulational supports are necessary. The regulational supports include assessment of current occupational health program and appropriate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quirements of voluntary occupational health program and conditions to be improved. Study population was industrial health managers of both industries with less than 300 workers and over 300 workers, and the member of labor union who is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in worksite. Two different questionnaire were used to find out th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to be improved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1. The category which prevalenc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occupational disease should be lower than national average was most important in health managers employed in industries over 300 workers and followed by reporting system, education, worksite policy, work environment assessment, protective equipment, consequently. But those employed in industries less than 300 workers showed high importance in prevalenc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 reporting system, worksite policy, work environment assessment, protective equipment, education, consequently.

2. The members of labor union thought that worksite policy was most important and the next is education, reporting system, work environment assessment, protective equipment, prevalenc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

* 본 연구는 1997년 산업보건연구소 연구비 일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3. There were difference in importance of education and worksite policy according to the size of industries. Reporting system, prevalenc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 and worksite policy had different importance between members of labor union and health managers.

4. In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for conditions to be improved,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was top manager's willingness excep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followed by financial support, legal suppor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the problems of representativeness of study population. but voluntary health program should be performed in worksites which have relatively good occupational health system. So, this selection bias could not disrupt our results.

Key words : voluntary occupational health program, requirements

I. 서 론

산업보건사업의 목표는 노동과 노동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적응 특히, 채용시 적정배치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키는데 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산업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ILO, 1983).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산업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고용주, 각 산업보건 서비스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과 서로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보건교육 및 훈련, 사업장 통계자료 관리 및 분석, 건강상담, 보건관리수첩 등이 있다(노동부, 1996).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근로자, 사업주, 보건관리자, 정부실무자가 상대방의 보건의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경중, 1992).

또한 특수건강진단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79.2%로 특수건강진단 수검률 96%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근로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수동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남시현 등, 1995).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들을 보면 노동조합이 활발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잘 소집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이원진 등, 1993),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사업에 관한 태도나 참여가 높기 때문에 산업보건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최재욱과 문옥륜, 1991). 이와 같이 산업보건사업은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등을 년2회 실시하는 것처럼 단면적인 사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사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업은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등 단면적인 사업을 위주로 수행되었고, 이들 사업의 결과에 대한 감시가 주된 통제방법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보건사업이 효과를 가지려면 지속적인 감시기능이 사업장 자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시기능은 결국 근로자와 사업장의 보건담당자, 최고경영자의 자발

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사 자율 안전·보건관리 정착이라는 명제아래 근로자의 참여 및 사업장의 자율에 관한 폭은 늘려 나가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많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노동부, 1997).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시하는 국제표준규격(ISO)이 점점 국제간의 교역에서 중요한 필수조건이 하나로 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ISO 규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dinger와 Levine, 1996).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국제간의 교역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자율적인 산업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약 2,583개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발적 보호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 VPP)을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VPP의 주요 내용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기업이 VPP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OSHA의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업보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VPP의 내용과 방법을 향후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ISO 산업안전보건관리 규격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SHA, 1996, Redinger와 Levine, 1996).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적인 산업보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과 자질이 따르지 못하는 자율적 산업보건사업은 근로자의 건강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미국의 VPP에서는 3년간 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 이하이거나 적어도 평균에 해당되어야만 VPP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율 산업보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업장에 국한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의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의 현실에서 자율적인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는 것도 실천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사업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율 산업보건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과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자율 산업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조사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우선 순위를 근로자 대표와 보건담당자 별로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자율산업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제조건 중요도에 관한 설문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보건사업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두 차례의 설문으로 실시되었다.

산업보건사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1차 설문 조사는 산업보건사업의 직접 대상자인 근로자와 사업 수행을 조정하는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 보다 산업보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노동 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 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장에서 자

울적인 산업보건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산업보건사업을 잘 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산업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상의 선정은 한국노동자총연맹에 의뢰하여 금속노동조합연맹, 화학노동조합연맹, 연합노동조합연맹의 산업보건담당자와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산업보건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20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관리자는 전국기업체 산업위생 관계자 협의회에 소속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56개 기업의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의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모든 보건관리자가 주로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겸직 보건관리자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무성의한 응답으로 인한 편견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소속된 기관의 보건관리대행 사업장 가운데 산업보건에 관심이 많아 연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보건관리대행 간호사가 선정하여 10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8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산업보건사업의 자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는 1차 설문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소속된 안전보건담당자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차 설문대상보다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2차 설문에서는 1차 대상 노동조합 이외에도 설문 대상에 포함된 보건관리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를 포함하였다.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국기업체 산업위생 관계자 협의회에 소속된 사업장 모두를 포함하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천과 구미 두 곳의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산업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보건관리 대행 사업장과 전임 보건관리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함께 포함되어 모두 215개의 사업장에 설문을 발송하였다.

2. 설문지

1차 설문지의 기본적인 문항은 미국의 자율 산업보건사업에서 대상 사업장 선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 가운데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율 산업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을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10점 척도로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표 1).

2차 설문지는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및 채용시 건강진단, 건강증진 사업, 근로자들에 대한 보건 교육 등 전반적인 산업보건 사업에 대하여 이런 사업들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보건관리자의 권한 강화, 법적 지원, 인적 지원,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 근로자의 인식전환, 정책 결정에서의 근로자 참여의 8가지 제시된 사항 중에서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2차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2).

또한 각 설문지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전화를 통하여 2명의 연구자가 직접 당사자에 전화를 하여 취지를 설명한 후 팩스 및 우편을 통하여 설문을 발송하였고 응답이 없는 경우에 다시 전화로 독촉하였다.

3. 분석 방법

1차 설문을 통하여 받은 결과는 거의 모든 응답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중요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규모 및 응답자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먼저 보건관리자가 응답한 설문을 가지고 규모별로 각 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후 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응답한 중요도의 차이를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보건사업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개

표 1. 1차 설문지의 내용

영역	문항	영역	문항
보건교육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신입사원 교육 보호구 교육 응급상황시 대처방안 안전보건규칙	산업보건 에 관한 회사내 정책	보호사항의 관리정책 반영 관리자의 책임숙지 조장 및 현장관리자의 책임 숙지 근로자들의 보건정책결정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유무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 보건부서의 위치 보건부서의 자체 결정권 및 실행권 전임보건관리자의 유무 현장관리자의 보건에 관한 권한 최고경영자의 정책 재정 및 기술적 지원 전문인력의 지원 임시직에 대한 보호 도급근로자의 보호
보호구 관리	정기적 지급 적절한 유지 보호구 착용 인식 안전기구 점검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고사항 조치 응급상황 조사 정기적 보고 및 감시 근로자의 동의		
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 실시 자체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개선 측정결과 공개	기타	직업병 발생률 재해율

표 2. 2차 설문에 포함된 문항

영역	문항	영역	문항
사업장 일반 현황		일차의료 및 의료체계	응급처치 후송인력 및 후송병원 만성질환 기본진료 유해요인 노출시 보고체계 사문화된 보고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응급상황에 대한 원인의 조사
응답자 관련 사항			
건강증진사업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건강진단	채용 및 배치전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언 정기건강진단 건강진단 항목의 선정 건강진단 결과의 근로자 통보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산업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장내 정책	보호사항의 정책 반영 관리자의 책임 숙지 작업반장이나 현장관리자의 책임 숙지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 책임자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권한 부서나 관리자의 위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임시직의 보호 도급직의 보호
작업환경관리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설명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새로운 작업공정도입시 안전성 검토		
사업장 위생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획득 및 비치 사업장 위생상태 정기점검 자체 작업환경감시 자체 정기 안전점검 위생상태 개선에 관한 제언의 수용		
개인안전 및 보호구 관리	정기교육 신입사원이나 부서전환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규칙 숙지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및 교육		

선되어야 할 사항의 분석은 설문지가 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각각 3가지를 선택하여 그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응답 순위에 따라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고 우선 순위가 없는 설문지는 각각 2점을 부여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건강증진,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사업장 정책, 일차의료 및 의료체계, 사업장 위생관리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의 우선 순위 점수의 총합을 구하여 각 영역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조건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차설문의 대상은 모두 86명이었고, 그 중 응답자는 50개 사업장으로 응답율은 58%이었다. 응답한 50명 중에서 보건관리자가 응답한 곳은 모두 39개 사업장이었고 그중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31개 사업장이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8개 사업장으로 모두 보건관리대행사업장이었다(그림 1).

2차 설문 응답자수는 모두 148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1명은 소속이 불명확하여 이 응답 결과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와 보건관리자를 비교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응답자 147명 중에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는 54명이었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93명

이었으며 노동조합은 없으나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4명은 분석의 편의상 노동조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65명이었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82명이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사업장중 85.6%가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건관리자의 전임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사업장 중 77.9%가 전임보건관리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

표 3. 2차 설문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응답자 특성 사업장 특성	전체	노동조합	보건관리자
기업 규모			
300인 미만	65(44.2)	28(51.9)	37(39.8)
300인 이상	82(55.8)	26(39.8)	56(60.2)
노동조합			
유	125(85.6)	50(92.6)	75(80.6)
무	21(14.4)	4(7.4)	17(18.3)
무응답	1(0.7)		1(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유	120(86.3)	42(77.8)	78(83.9)
무	19(13.7)	8(14.8)	11(11.8)
무응답	8(5.4)	4(7.4)	4(4.3)
전임 보건관리자			
유	113(77.9)	37(68.5)	76(81.7)
무	32(22.1)	15(27.8)	17(18.3)
무응답	2(1.3)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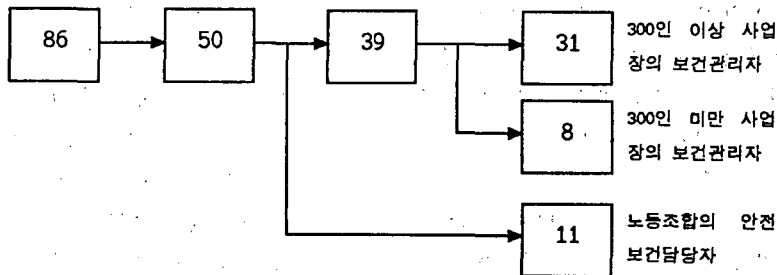


그림 1. 1차 설문 대상자의 분포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3.3세였고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들의 평균 연령이 35.6세로 보건관리자의 평균 연령인 32세보다 많았다. 또한 성별 분포를 보았을 때 전체 응답자 중 76.9%가 남자였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안전보건담당자의 경우 여자 근로자는 2명이었으나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34.4%인 32명이 여자로 이는 보건관리자가 응답한 가운데 27.2%가 간호사이기 때문이었다 (표 4).

표 4. 2차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전체	노동조합	보건관리자
연령(세)	33.26±6.11	35.60±4.83	31.95±6.38
성별			
남	113(76.9)	52(96.3)	61(65.6)
여	34(23.1)	2(3.7)	32(34.4)

2. 응답자별 자율 산업보건실시에 필요한 전제조건
의 중요도 순위

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식의 차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전제조건 중요도를 규모 및 전임여부에 따라서 알아보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직업병 유병률과 재해율이 낮아야 한다는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고사항 및 체계, 보건교육, 사업장의 정책,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호구 관리의 순서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역시 직업병 유병률과 재해율이 낮아야 한다는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보고사항 및 체계, 사업장의 정책,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호구 관리, 보건교육의 순서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근로자의 보건교육과 사업장의 경영정책에

관한 영역이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업장의 경영정책에 대한 항목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표 5).

표 5.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율 산업보건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중요도

영역	평균±표준편차		
	300인 이상	300인 미만	t값
보건교육	17.29±3.81	23.31±5.46	2.9412**
보호구 관리	20.54±4.77	22.75±4.71	1.1794
보고사항	15.36±3.67	15.90±5.18	0.2769
산업보건에 관한 회사내 정책	19.80±2.15	17.04±2.83	2.5736*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20.41±4.47	19.17±5.77	0.6037
기타(사업장의 재해율 및 직업병 유병률)	10.86±8.84	14.81±9.18	1.0928

* ; p(0.05); ** ; p(0.01)

a ; 응답 순위에 따라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한 점수의 합

나. 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자의 인식 차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는 자율 산업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사업장의 정책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교육, 보고사항 및 체계,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호구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보건관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직업병 발생률이나 재해율은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자간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본 결과, 보고체계 및 기타 영역은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자가 보건관리자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사업장의 경영정책은 보건관리자가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에 비하여 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표 6).

표 6. 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자의 자율 산업보건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의 중요도
평균±표준편차

영역	보건관리자	노동조합	t값
보건교육	*18.53±4.79	18.16±2.99	0.3076
보호구 관리	20.99±4.78	19.68±3.77	0.9565
보고사항	15.47±3.95	18.37±2.96	2.6532*
산업보건에 관한 회사내 정책	19.24±2.53	17.83±1.57	2.2637*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20.22±4.71	19.55±5.03	0.4006
기타	11.67±8.93	20.59±9.42	2.8042*

* ; p<0.05; ** ; p<0.01

a ; 응답 순위에 따라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한 점수의 합

3. 자율 산업보건 사업 수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설문대상자들에게 현재의 산업보건사업이 자율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재정적 지원과 보건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외에는 개인 안전 및 보호구 관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건강증진 사업, 건강진단, 일차의료 및 의료체계 분야는 재정적 지원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작업환경관리와 사업장 산업보건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법적 지원, 사업장 위생관리는 보건관리자의 권한 강화가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개인 안전 및 보호구관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자의 인식전환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7).

IV. 고 찰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예방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

고, 직업병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산업보건 사업의 성과는 결과보다는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과 사업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성군(김성군 등, 1994) 등과 최재욱(최재욱과 문옥륜, 1991) 등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직업병의 발생이나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런 산업보건 사업의 활성화는 지속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산업보건 사업에 있어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지속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2회 시행하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의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 중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조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은 수의 근로감독관이 절대 다수의 기업을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형식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evine, 1996).

사업장 내의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같은 외부 기관의 감독 보다는 사업장 내부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점을 중시하여 미국에서는 자발적 보호프로그램(VP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표준기구에서는 ISO 9000/14000에서 품질이나 환경의 결과는 물론이고, 이것이 수행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산업안전보건사업의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ISO 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도 지속적 관리를 중시하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dinger와 Levine, 1996).

이와 같이 근로자, 사업주, 보건관리자 등의 사업장 내부의 관련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산업보건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VPP 예에서 살펴보면 VPP를 적용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표 7. 산업보건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사업별 중요도 순위의 합

단위 : 중요도(%)

	건강증진사업	건강진단	작업환경관리	사업장 위생관리	개인안전 및 보호구관리	임차의료 및 의료체계	사업장 산업보건정책	계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213(24.6)	1006(23.5)	808(19.2)	406(23.8)	307(17.9)	389(23.1)	424(24.9)	3553(22.2)
재정적 지원	170(19.6)	743(17.4)	522(12.4)	232(13.6)	202(11.8)	283(16.8)	238(13.0)	2390(14.0)
보건관리자 권한 강화	104(12.0)	620(14.5)	586(13.9)	268(15.7)	242(14.1)	276(16.4)	218(12.8)	2314(4.5)
법적 지원	99(11.4)	540(12.6)	678(16.1)	200(11.7)	188(10.0)	205(12.2)	258(15.1)	2168(13.5)
근로자의 인식전환	143(16.5)	564(13.2)	391(9.3)	189(11.1)	386(22.6)	138(8.2)	182(10.7)	1993(12.5)
정책결정에서의 근로자 참여	60(7.0)	416(9.7)	491(11.7)	160(9.4)	147(8.6)	137(8.2)	159(9.3)	1570(9.8)
기술적 지원	40(4.6)	228(5.3)	552(13.1)	159(9.3)	176(10.3)	149(8.9)	144(8.4)	1448(9.0)
인적 지원	37(4.3)	156(3.7)	36(2.2)	95(5.6)	64(3.7)	104(6.2)	83(4.9)	575(3.6)

a : 응답 순위에 따라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한 점수의 합

기업에 비해 재해율,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 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VPPPA, 1997).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을 사업장을 자율에만 맡겨 놓을 경우 오히려 그 사업장을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자율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3년간 평균재해율이 동종 업계의 평균과 같거나 낮아야 VPP 적용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어도 근로자대표가 이를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참여의식이나 최고경영자의 정책의지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OSHA, 1996). 이러한 사항들은 국제표준기구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도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직업성재해의 발생율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이 동일 업종 전국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들은 사업장의 경영정책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근로자들은 작업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하였고(조수남과 문영한, 1990), 현재 산업보건사업의 문제점을 작업환경개선, 사업주의 보건의식, 건강진단 등의 순서로 지적하였다(이경중 등, 1992). 이들 연구와 본 연구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기본 전제가 자율 산업보건 수행이라는 데 있고, 산업보건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2차 설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 경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경영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노동조합 담당자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응답하여 노동조합이나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산업보건사업의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최재욱과 문옥륜, 1991; 김규상,

1993; 김성균, 1994; 최장선, 1996).

전제조건인 중요성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았는데 여기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근로자의 보건교육과 사업장의 경영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대상자들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모두 관리대행 사업장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전임 보건관리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규모의 차이만을 나타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업장의 규모는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박정일 등, 1994; 이승한 등, 1977; 조수남과 문영한, 1990)을 감안하면 실제로 사업장의 규모가 전제조건인 중요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규모에 따라 자율 산업보건사업대상 사업장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와 보건관리자간에는 전제조건인 중요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보고 체계 및 기타 영역에서는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자가 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장의 경영정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가 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자율 산업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문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호구의 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산업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의식이었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의 의식과 보건관리자의 권한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과는 현재 우리 나라 산업보건 사업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산업보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사업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설문은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사업주와 접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고 또한 사업주에게 설문을 보내었을 때 과연 사업주 당사자가 설문에 응답할 것인지가 의문

이었던 이유도 있으며, 이는 이경중 등(1992)이 시행한 산업보건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었다. 또한 노동조합 측의 설문에서도 최고경영자의 경영정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보건관리자의 권한 강화라고 지적하였는데, 이것도 산업보건 사업을 실행하는 중심에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적 지원의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업주가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업주의 재정적 지원은 처음에 지적된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향후 자율 산업보건관리를 실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으로 향하게 되어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는 정책과 배치되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일부 설문지에서 제기된 내용들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계속해서 산재가 없는 경우 최저 보험료를 더 낮추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자의 산업보건사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선되어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 가운데 '임시직과 도급직의 보호', '채용 및 배치전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등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이것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채용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것은 현재도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임시직과 도급직에 대한 보호의 경우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도나 자율 가능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서 법적의무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전체 사업장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보건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산업보건 사업이 잘되지 못하는 이유 또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

주로 근로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반면에 이번 연구는 자율 산업보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업보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이 선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비교적 산업보건 사업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설문 대상자도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산업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조합의 산업보건담당자나 노조위원장과 보건관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자율 산업보건사업 대상 사업장은 이제까지 산업보건사업을 상대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구 대상의 의도적 선정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사업장에서 자율 산업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하여 전제조건 중요성과 자율 산업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직업병 유병률과 재해율이 낮아야 한다는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고사항 및 체계, 교육, 사업장의 정책,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호구의 순서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역시 직업병 유병률과 재해율이 낮아야 한다는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보고사항 및 체계, 사업장의 정책,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호구, 교육의 순서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담당자는 자율 산업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사업장의 정책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교육, 보고사항 및 체계,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보호구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보건관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직업병 발생률이나 재해율은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순위중 근

로자의 보건교육과 사업장의 경영정책에 관한 영역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보고사항, 사업장의 경영정책, 직업병 발생률이나 재해율은 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율 산업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문결과에서는 보호구의 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산업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재정적 지원, 보건관리자의 권리강화, 법적 지원의 순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전체 사업장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번 연구는 자율 산업보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업보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이 선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되어 있지만,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김규상, 노재훈, 이경중, 문영한, 정호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3; 5(1): 39-50

김성균, 노재훈, 안연순. 제조업 분야 근로자의 진폐증 사후관리 실태. 대한 산업의학회지 1994; 6(2): 421-428

남시현, 감신, 박재용.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의학회지 1995; 28(2): 334-346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996

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노동부, 1997

박정일, 이강숙, 이원철, 이세훈.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산업의학회지 1994; 6(1): 42-55

이경중, 조명화, 박종연, 신동천, 노재훈, 문영한. 인천 지역의 산업보건 문제와 그 해결의 우선순위. 예방의학회지 1992; 25(2): 189-198

이승한, 심재위, 조규상. 중소기업의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한국의 산업의학 1977; 16(2): 69-83

이원진, 김대성, 백도명. 직업병 유소견자들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3; 5(2): 283-294

조수남, 문영한. 일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0; 2(2): 186-198

최장선, 송재석, 원종욱, 강중두, 차봉석, 노재훈.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들의 사후관리 실태. 대한산업의학회지 1996; 8(2): 272-281

최재욱, 문옥륜. 일부 사업장의 산업보건 사업에 있어서의 근로자 참여에 관한 조사 연구. 예방의학회지 1991; 24(3): 339-355

ILO.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3rd ed., Geneva, 1983

Levine S. Development of an ISO 9000-compatible occupational health standard II: Defining the potential benefits and open issues. Am Ind Hyg Assoc J 1996; 57(4): 387-391

OSHA. Revised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policies and procedures manual. OSHA, 1996

Redinger C, Levine S. New frontier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 management systems approach and the ISO model. AIHA 1996

VPPPA. Current status of VPP participants. VPPPA, 1997